

김영록 지사 “현대차 투자유치·반도체 클러스터 만들겠다”

수소 생산플랜트 구축 등 준비
투자 최적 입지 청사진 강조
“올 1년 단군 이래 황금찬스”

김영록 전남지사는 8일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확충해 현대자동차그룹 투자를 준비하고,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12월 정례조회에서 “현대차가 롬이 수전해 수소 생산플랜트와 AI 데이터센터로 전남·북에 구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전남은 풍부한 부지와 용수,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등 반도체 클러스터의 최적 입지”라며 현대차 투자에 대비한 청사진을 소개했다.

김 지사는 이어 “비상 시국 상황에서 호남이 나라의 근bones을 지키고 잘 극복하면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탄생의 밑바탕이 됐고, 이에 대통령이 ‘호남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며 전남에 탄탄대로의 길을 만들어줬다”고 지난 1년을 회상했다.

전남도는 올 한해 오픈AI와 SK그룹의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삼성SDS의 국가 AI 컴퓨팅센터 등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고,

2018년 6조원대였던 국비 확보액이 2026년 10조원을 돌파했다.

또 인공지능 연구시설 유치, 2026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국내 후보지 여수 선정, 유튜브 10만 구독자 돌파와 조희수 100만회 돌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김 지사는 이 같은 황금 찬스가 저절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19년 7월 블루이코노미 비전선포를 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대전환시대를 선도하겠다고 천명한 이후 열심히 달려왔다”며 “그 결과 재생에너지와 풍부한 물, 전력계통, 에너지공대를 비롯한 글로벌 대학 등 AI시대를 선도할 기본적 인프라를 갖춰 황금 찬스를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황금같은 기회는 기회일 뿐이며, 앞으로 우리 것으로 만들어 진짜 황금으로 만들어야 할 책무가 주어졌다”며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농업 AX 플랫폼 추진 등 전통 농수산업을 강화하고, 에너지 첨단산업을 선도하면서 문화관광산업까지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모델이 되고 표준을 제시하는 지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8일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공감과 소통을 위한 ‘12월 정례조회’에서 직원들과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 지사는 또 “목포대와 순천대 두 글로벌대학이 통합하기 때문에 전라남도 의과대학 추진도 잘 풀릴 것으로 판단된다”며 “2026년 2월 통합대학교의 과대학 정원이 배정을 받으면 이르면 2027년 개교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김 지사는 “올해 초 나라가 백적간두 위기에서 출발했지만, 새 정부 탄생 이후 모두가 숨 가쁘게 노력한 결과 전남은 단군 이래 최대 황금찬스를 맞았다”며 “기회를 잘 살려 진짜 황금으로 만들자”고 거듭 당부했다. 정근산 기자

서삼석 의원 “농어촌 ATM 지역간 최대 30배 격차”

금융 서비스 개선 촉구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최고위원(영암·무안·신안)은 8일 “현금 인출 및 이체를 위해 사용하는 은행 ATM이 농어촌 주민에게 제한되고 있다”며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금융 서비스 접근성 문제를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ATM의 44%가 국토 면적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몰려 있다”며 “농어촌 기초단체인 82개 군의 읍·면 주민 가운데 1km 이내에서 ATM을 이용할 수 없는 비율은 평균 44%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TM 이용 불가 주민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이며, 전남 신안군의 경우 76.2%에 이른다”며 “반면 광역시



기초단체인 가장 적은 2.6%에 불과해 같은 군 단위에서도 지역간 격차가 30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82개 군 중 84%인 69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며, 1km당 ATM 설치 수는 2024년 기준 0.15대로 매년 줄어드는 실정”이라며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이 90.4대인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농어촌 주민들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 불평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촌의 금융 서비스 등 생활 서비스 만족도는 10점 만

점에 5.8점으로, 도시 대비 현저히 낮다”며 “고령 농촌 주민들은 단순 현금 서비스를 위해서도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불편을 여전히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 서비스 관련 내용은 전무하다”며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현장에서는 매우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서 최고위원은 “농식품부와 금융위원회는 해당 법의 제정 목적에 따라 금융 서비스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김현수 기자

신정훈 의원 “전남에 다시 희망의 새 길 내겠다”

내년 전남지사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하순)이 8일 내년 지방선거 전남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인 신 의원은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에 다시 희망의 새 길을 내겠다”며 도박 출마를 공식화했다.

신 의원은 “전남이 소리가 너무 높고 있다”며 “8년 전 취임한 김영록 지사는 인구 200만 시대를 만들겠다고 장담했지만, 5년간 전남을 떠난 청년만 무려 6만2,000명이고 전남의 소멸지수는 0.3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벼랑끝 ‘위험’ 단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록 도정 8년 동안 100조원의 예산을 집행하고도, 도민의 삶도, 전남의 경제도, 쓰러지는 민생도 나아질 기미가 없다”고 직격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도민이 주인되는 도민주권정부를 만들겠다”며 “도의 권한을 최대한 시군에 이양해 도민자치를 강화하고, 도민참여위원회를 만들어 도민주권 속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의원은 또 “전남형 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을 적극 활용해 지역순환경제 기반을 강화, 농어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8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지방선거 전남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신정훈 의원실 제공

의 소멸을 극복하겠다”며 “무상 대중교통 실현, 마을택시·순환버스·광역교통 연결, 광역교통 단일요금제 실현 등 생활비가 제일 싼 전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양곡관리법과 한우법, 농산물가격안정법 기반 ‘전남형 목표가격제’ 시행 △데이터센터, 반도체공장, RE100산단 중심 ‘전남발전 3대 패키지’ 추진 △고흥 제2 우수센터 유치 등 고흥-순천-여수를 잇는 ‘전남 우수항공 산업벨트’ 등을 제시했다.

정근산 기자

김주용 도의원 “전남도 남성 난임지원 시범사업을”

갈수록 늘어나는 남성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농수산위 김주용 의원(더불어민주당·바례)은 최근 열린 2026년 전남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남성 난임 지원은 공백이다”며 대상을 확대해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남성 난임 진단자는 10만8,000여명으로 처음 10만명을 넘어섰다. 과거 5~6년 전보다 약 40% 가까이 증가한 수치지만, 남성



난임에 대한 공적 지원은 전체 난임 정책의 소수에 불과해 많은 남성 난임 부부가 높은 시술비를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정부형·전남형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 모두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여성 중심 시술비만 지원하는 구조”라며 “난임 원인은 남성에게도 있는 만큼 무정자증 정자 채취술 등 남성 난임 치료에 대한 일정 부분 지원이

이뤄진다면 난임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성 난임 지원은 단순히 새로운 부담을 떠안자는 취지가 아니라, 이미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가 함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정책 보완”이라며 “전남도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남성 난임 검사와 시술비 지원 시범사업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정근산 기자

기사제보받습니다.
jndnnews@naver.com



www.goldclass.co.kr

단, 한채의 집을 짓더라도 내 집 짓는 정성으로
고객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담은 명품주거공간으로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 온 기업, 골드클래스
그 기술과 정성으로 고객감동을 더해 나가겠습니다

행복 위에 지은 집!
GOLD CLASS

골드클래스

골드클래스(주) · 보광종합건설(주) · 골드종합건설(주) · 금강건설(주) · 골드에스비건설(주) · (주)여수오션퀵즈파크골드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01 (화정동) 골드클래스 ■ 문 의 : 062) 233-3999